

인터넷+TV+전화	42만원
인터넷+전화	33만원
인터넷+TV	31만원
인터넷	23만원

## 초고속인터넷 회원 유치 과열 경쟁

인터넷+TV+전화	46만원
인터넷+전화	40만원
인터넷+TV	39만원
인터넷	24만원

“여름 휴가비 마련 초고속인터넷 개통시 60만원 상당 현금 및 사은품 제공.”  
“인터넷통신사 변경시 55만원 상당 드립니다.”  
“초고속인터넷 개통시 현금 실시간 최대 60만원+스마트폰 공차+요금 35%+@.”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계의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최근 통신시장의 초점이 휴대전화 요금인하, 보조금 지급 등에 쏠리자 초고속인터넷업체 간 과열 경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2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3년 약정으로 월 2만7500원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24만원 상당의 사은품이 지급된다. 또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38만원, 초고속인터넷과 070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의 경우 39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3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070 인터넷전화+IPTV)에 가입할 경우 최대 45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3년 약정으로 월 2만7500원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23만원이 지급되고,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은 33만원, 인터넷과 전화, IPTV 결합상품의 경우는 42만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었다.

### 업체간 은오프라인·텔레마케팅·판촉전 치열

### 사업자간 출혈경쟁 결국 서비스 질 저하 초래

### 올 초고속 관련민원 39% 증가...소비자만 피해

실제 이 사이트에 전화해 물어본 문의한 결과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3년 약정, 3종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45만원(현금 28만원+백화점상품권 17만원) 상당의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상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온라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텔레마케팅 경쟁도 극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등에 임시 전막을 설치해두고

‘휴가비’ 등을 미끼로 영업을 하거나 인터넷업체별로 가입자들에게 전화로 통신사 갈아타기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경쟁 없이 인터넷에 가입하면 손해라거나 1년에 한차례 통신사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이익

가 과도하게 요금을 감면하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경품을 지급했다며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쟁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쟁 공세가 사업자의 투자를 가로막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1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관련 민원은 1만 60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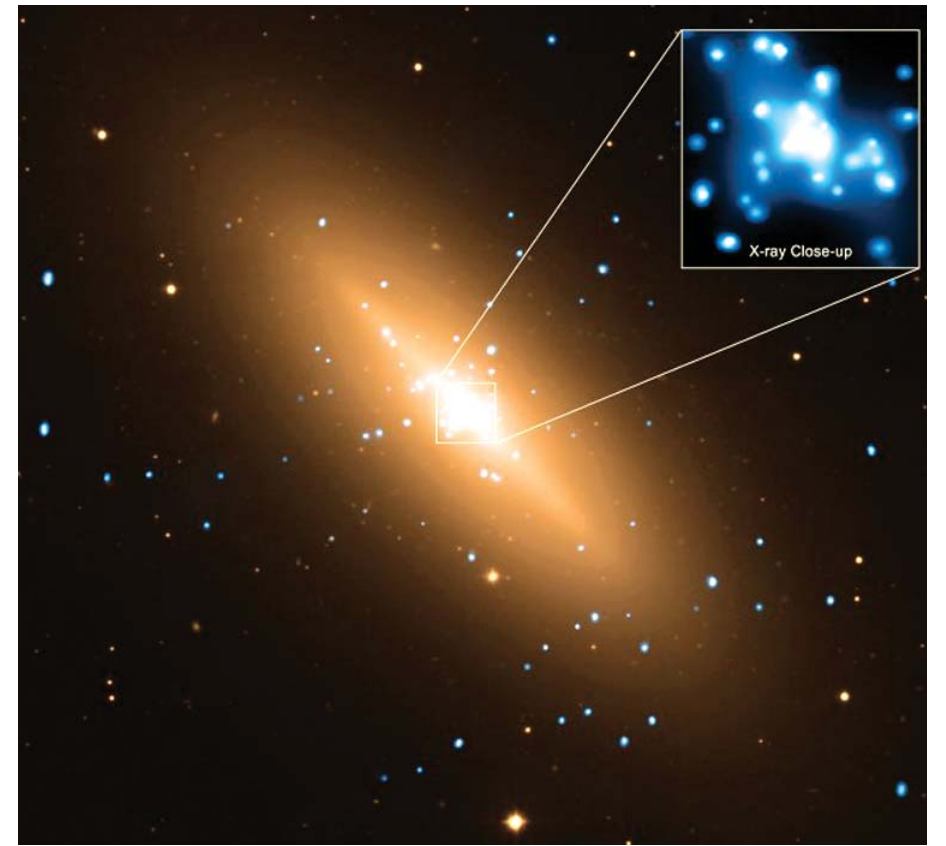
이 같은 이유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이 39.2%(1114건)나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통신 민원 가운데 요금 불만이 31.1%(4762건)로 가장 많았고, 문의·답변 18.2%(2779건), 설치·교환 등 업무처리 10.9%(1673건), 통신 품질 7.6%(1170건) 순으로 통신사업자 간에 경쟁 제공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이 39.2%(1114건)나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통신 민원 가운데 요금 불만이 31.1%(4762건)로 가장 많았고, 문의·답변 18.2%(2779건), 설치·교환 등 업무처리 10.9%(1673건), 통신 품질 7.6%(1170건) 순으로 통신사업자 간에 경쟁 제공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이 39.2%(1114건)나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우주 가스 뿔아들이는 블랙홀 지구에서 3200만 광년 떨어진 NGC3115 은하계 중심에 있는 태양의 20억배 크기의 블랙홀이 우주가스를 뿔아들이는 모습. 미항공우주국(NASA)이 쏘아올린 찬드라 위성으로 촬영했다. /연합뉴스

## 국내 최대 상어 이빨 화석 발견

신생대 메갈로돈 추정...길이 10.7cm 높이 10.2cm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는 경북 울진 인근 해안에서 국내 최대 크기인 신생대 상어 이빨 화석을 발견했다고 1일 말했다.

센터는 이 상어 이빨이 “경사(이빨 측면) 길이 최대 107mm, 높이가 102mm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상어 이빨 화석 가운데 최대 크기이며, 영화 ‘쥬스’의 상어와 가장 가까운 종류”라고 전했다.

이 화석은 지난 5월19일 어업에 종사하는 진영씨가 우연히 발견해 기증했으며, 이후 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이빨 화석의 상어는 현존하는 상어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나 이미 멸종된 메갈로돈(megalodon)의 이빨과 같은 날카로운 톱니구조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빨의 톱날 구조는 신생대의 대표적 대형 육식성 상어 종류인 메갈로돈과 형태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센터는 말했다.

센터의 임종덕 연구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생대 한반도 해역에 서식한 메갈로돈은 몸 길이가 10m가 넘는 정도로 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환경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소가 이번 상어 이빨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여우 두 개골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를 2012년 세계척추동물학회에 발표하며, 대전에 소재하는 센터 전시관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에도 공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포항시 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약 1200백만~1400만년전 지층에서 경사 길이 67.92mm에 높이 43.45mm인 상어 이빨이 발견돼 당시까지 최대 크기로 보고된 바 있다. /연합뉴스

## 게임 속 “물리야 놀자”

### 인터세이브, 아케이드 게임 앱 출시

광주 (주)인터세이브(대표이사 이갑형)는 물리학 기반의 액션 아케이드 게임 ‘Just A Ball’을 애플 앱 스토어에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Just A Ball’은 화면 내에 자유롭게 날려 있는 오브젝트들을 사용해 상자에 축구공을 집어넣는 게임으로 간단한 속에 숨겨진 즐거움과 접근성이 돋보이는 게임이다.

또, 전체적으로 선명하고 밝은 그래픽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조작 방법이 쉬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게임 안에 실제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 있어, 축구공이 각종 오브젝트들에 튕겨 상자에 들어가기까지 게임을 즐기는 동안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점도 매력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벌써부터 플레이어들에게



‘Just A Ball’

“알 수는 없지만 ‘Just a Ball’은 게임에 빠져들도록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애플 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INTERSAVE(인터세이브) 또는 ‘Just a Ball’로 검색하면 된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 SKT 스마트 오피스 구축

### 전 직원에 태블릿 PC 지급

SK텔레콤이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전 직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사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기존에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던 모바일 오피스를 태블릿PC 기반으로 확장, 더욱 강화된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9일부터 일부 사무실에서는 태블릿PC를 기반으로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실현하고 있다.

‘페이퍼리스 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자신의 태블릿PC에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싱크보드(SyncBoard)’ ▲ 업무매뉴얼, 교육자료 등 사내 출판물을 전

자 매거진 형태로 제공하는 ‘인포보드(InfoBoard)’ ▲태블릿PC를 통해 카탈로그를 제공, 보다 실용력 있는 고객 컨설팅을 지원 하는 ‘T 비즈카탈로그’ 등 총 3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iOS, 안드로이드를 모두 지원한다. 또 1인당 50GB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 개인 PC내 문서를 연동할 수 있게 하고, ‘싱크보드’, ‘인포보드’, ‘T비즈 카탈로그’ 등의 태블릿PC 서비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VDI(Virtual Desktop Infra)를 통해 외부에서 태블릿PC를 이용, 사무실의 데스크탑 PC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외근이 잦은 구성원에게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안검의 노화 현상인 안검 피부의 처짐, 하수 및 외안 각부의 잔주름 등은 피할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또 안와지방이 불거져 나오면 이른바 축 늘어진 안검 변형이 생긴다. 또 기능적으로 안검열이 내려와 시야가 좁아지고 거근 근막의 약화로 안검하수를 초래할수 있으며 노인성 안검외반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안검 성형술이라고 한다. 수술후 미용적인 교정뿐만 아니라 축 쳐진 눈꺼풀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시켜 줌으로서 기능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남성의 상안검 성형술은 상안검의 기능적인 문제 즉 안검하수, 시야장애, 눈썹하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원한다. 수술전 검사로는 먼저 시력을 체크하고 안구돌출, 안구운동, 각막이상 등의 안구의 이상유무를 먼저 검사해야 하며 유루누선이나 누소관, 누점등의 이상 등

의 누관계통 이상이나 안륜근의 이상, 눈썹의 이상, 하수의 유무, 안검 피부의 과잉도, 피부의 성상, 피부 병변의 유무, 좌우의차, 반흔의 유무등과 함께 안와 지방의 양과 돌출도, 돌출부위를 검토해 보는

## 상안검 성형술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1. 이마의 하수정도
2. 상안검과 하안검의 과도한 피부의 주름양과 정도
3. 양쪽 안검에서 돌출된 안와 지방의 양과 위치, 특히 상안검의 내측지방과 하안검의 외측지방.

4. 상안검과 하안검에서 안륜근의 양과 모양
5. 안검 피부에서의 색소침착과 노인성 및 퇴행성 변화, 안와골의 형태 눈물샘의 하수 정도 등이다.

수술은 쌍꺼풀선 없이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것과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남성들은 쌍꺼풀선 없이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피부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동양인의 쌍꺼풀 높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6~8mm 정도이며 10mm이상 넘지 않도록 도안 하는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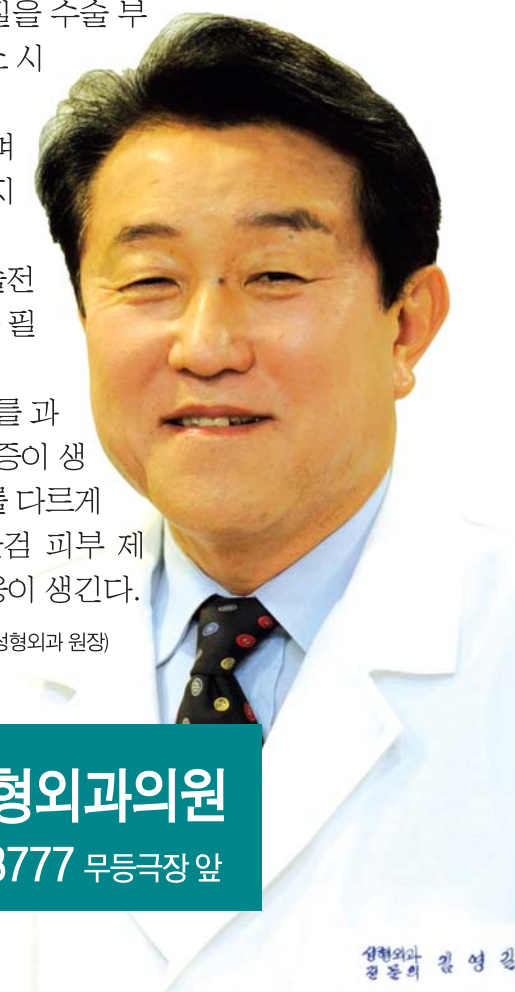
좋다. 수술후 12~24시간은 약간 압박 하면서 얼음 주머니에 의한 냉찜질을 수술 부위 반상 출혈이나 부종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세안은 7일정도 지나야 하며 눈화장도 7일 이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화장은 2주후에 하는것이 좋다. 무엇보다 수술전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 피부를 과다하게 제거하면 상안검외반증이 생기며 양측 상안검 피부 제거를 다르게 하게되면 비대증이되며 상안검 피부 제거한 부위가 염증이 오면 반응이 생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성형외과 김영길